

2024년
VOL.3

KIP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정부혁신 최초 최고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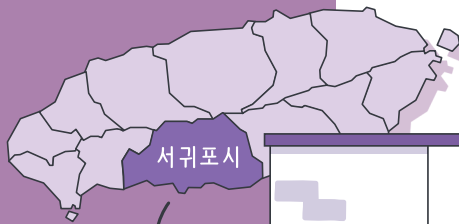
엄마도 아이도
건강하게 지켜드려요 :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정은경 선임행정원 (행정혁신연구실)



서귀포시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혁신연구실



2024 정부혁신 **국내최초** 사례



엄마도 아이도
건강하게 지켜드려요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정은경 선임행정원(행정혁신연구실)



갑작스런 사회변화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홀로 어려움을 버텨내야 하는 산모들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처음으로 '산후조리'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으로 끌어온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삼칠일(三七日)’이라는 출산문화가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21일 동안 대문에 금줄을 걸어놓고 외부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쁜 기운을 막고, 산모가 마음 놓고 회복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산모와 아이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몸을 쉬며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산모들은 산후조리 기간에 예전과 같은 가족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비율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1997년 서울 강남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산후조리원이 생겨났지만, 지리적, 금전적 요인으로 인해 모든 산모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사회 변화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홀로 어려움을 버텨내야 하는 산모들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처음으로 ‘산후조리’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으로 끌어온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다.

✔ 산후조리의 필요성



출산은 임신의 끝이 아니라 육아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어린 부모 앞에는 찰나의 기쁨과 동시에 육아라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된 과정을 거치며 몸은 약해져 있고, 마음은 갑자기 ‘엄마’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아이를 지켜야 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다.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이 새로운 출발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산모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돕고 신생아 육아에 대해 알려주는 등 엄마로서 새로운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산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발표한 ‘산모와 신생의 산후 관리에 관한 권고안’에는 산모는 출산 후 약 6주 동안의 산후 관리를 통해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신체적 회복과 모유 수유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산후 관리는 여성뿐 아니라 신생아의 단기적, 장기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모의 경우에는 산후 출혈, 감염, 빈혈 등과 같은 합병증과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생아도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 동안 수유 문제, 호흡 곤란, 발열, 황달과 같은 합병증 징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발표한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관리 권고안'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이 대부분 산후 기간에 발생하는 만큼 이 시기 동안 적절한 산후 관리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와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후조리가 왜 산모에게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산후조리가 민간에만 맡겨진 결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특정 고급 산후조리원들이 이슈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마치 산후조리가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산후조리는 단순히 산모의 휴식과 미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응답한 산모가 78.1%에 달했으며, 실제로 산후조리를 위해 대부분의 산모(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많은 산모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시설로 인식되는 산후조리원을 민간에만 맡겨놓는 것은 향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과 산후 회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걱정거리를 줄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공공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산후조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①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산후조리 대책의 한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456개의 산후조리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0개로 전체의 약 4%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체 산후조리원 중 절반 이상인 257개의 산후조리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아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Ⅰ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3년 하반기 기준) Ⅰ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민간	110	22	20	22	7	9	6	6	143	13	9	12	9	8	10	24	6	436
공공	2	0	0	0	0	0	1	0	2	4	0	1	0	5	3	1	1	20
합계	112	22	20	22	7	9	7	6	145	17	9	13	9	13	13	25	7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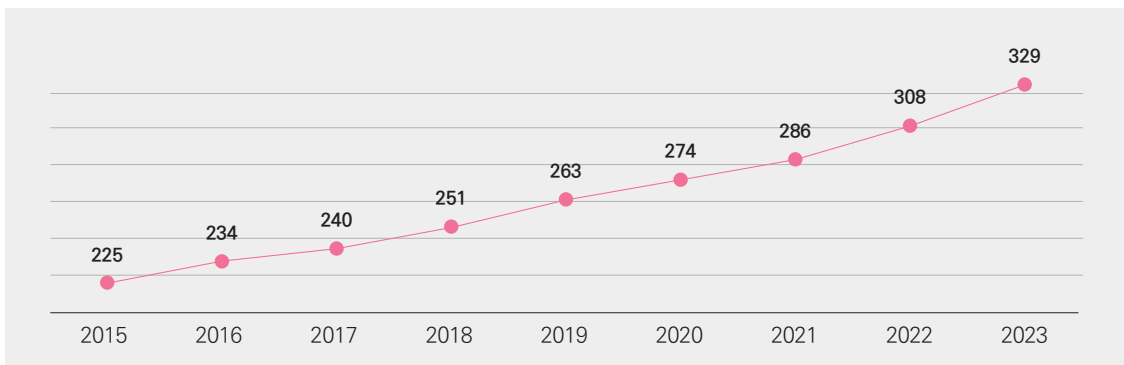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성 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존재한다. 전체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는 일반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29만 원에 이른다. 위 평균 금액조차도 일반적인 근로자 금액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최근 고급화를 내세운 민간 산후조리원 중 일부는 2주 동안의 이용료가 3,800만 원에 달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은 점점 영리화, 기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출산 후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만으로도 고민이 깊은 3~40대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177만 원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이용료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합리적인 액수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어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이다. 실제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모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산후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75.6%)이 가장 많이 꼽혔다.

Ⅰ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 추이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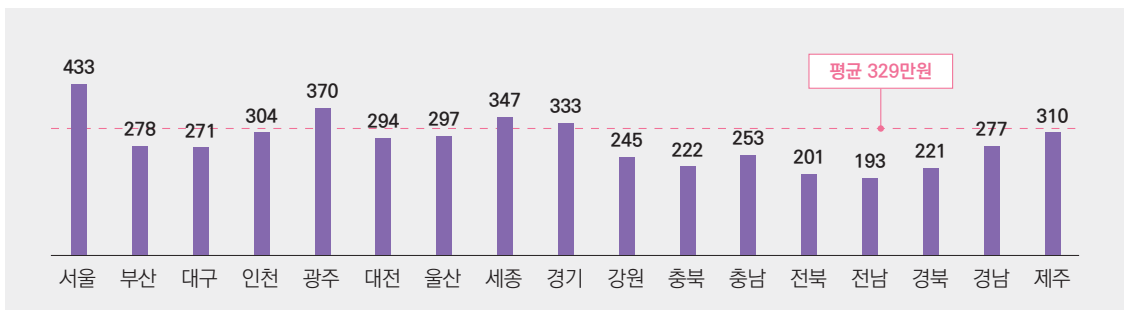
(단위 : 만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Ⅰ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2023년 하반기) Ⅰ

(단위 : 만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전국 최초로 생겨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3월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귀포시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곳도 없는 산후 의료서비스 취약지였다. 제주도 내 산후조리원 8곳은 모두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서귀포시의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제주시로 원정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원정 출산 문제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2011년 10월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3년 1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며 도비 12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지자체에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벤치마킹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20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산모가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로 설립 11주년을 맞은 현재도 연간 약 200여 명의 꾸준한 이용자 수를 유지하며 서귀포시를 비롯한 제주도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의 접근성을 높여 출산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전경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입구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시설 이용료를 2주에 154만 원으로 유지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차원의 산후조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산모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최대 7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신체적 후유증을 겪었을 산모가 상당수 발생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기까지는 적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아이를 위해 밤낮없이 힘을 내주는 간호사들과 직원들의 노력과 책임감이 크게 일조했다. 설립 초기부터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한 김광희 원장과 한성이 책임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간호사들은 현실적·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 영유아는 일반 성인 환자와 달라서 야간에도 주간과 같이 계속해서 관리에 집중을 요한다. 심지어는 육아용 흔들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간호사들은 영유아들 하나하나 모두 직접 팔로 안아 흔들어 재우는 정성을 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간호사와 직원들의 정성은 산모와 아이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이고 고마운 일이겠지만 역설적으로 간호사들과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의 간호사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아직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제대로 퍼져나가지 못해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믿는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지하고 전국 곳곳에 퍼지도록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산모 휴식공간



신생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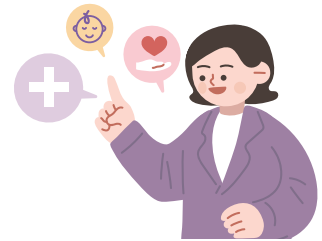
마사지 및 관리실



산모방 내부



① 엄마가 되는 법? 우리가 알려줄게!



아이를 처음 낳은 엄마는 모든 것이 무섭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왜 우는지도 모를 뿐더러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아이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요즘 대부분의 산모들은 주변에 육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신생아 육아에 대해 배운다. 하지만 이런 방식만으론 내 아이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변수에 하나하나 대처하기 어렵다. 실제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입원한 산모가 유튜브에서 아이가 꼭 분유 200cc를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꾸 먹지 않는다며 울며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도울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생아 돌봄과 육아의 기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산모들은 베이비 마사지, 부모교육, 초점책 만들기, 이유식 교육, 빈혈관리 교육, 모유수유 교육, 산후체조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돌봄 방법을 배움으로서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교육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간호사들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수시로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배우기도 한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 장소로 이용한 이유로 '산후조리원에서 육아전문가에게 육아 방법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35.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모유수유와 모자동실(母子同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모가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가들도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와 아기가 같은 방을 쓰며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모유수유 경험을 늘리고 생애 초기 애착 및 교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최근에는 산후조리의 개념이 산모 중심으로 치우쳐져 산모가 온전히 쉬기 위해 아기는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모자동실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도 산모가 모자동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모자동실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1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엄마와 아기가 한 방을 쓰며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모자보건법을 통해 모자동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념을 산모에게 전하고 선택지로 제안하는 것 자체가 산모와 아기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모자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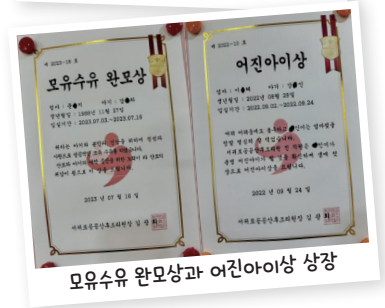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혹 모자동실이라는 용어로 인해 산모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유아를 항상 산모와 있게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산모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 적절한 시간을 조율하여 유연하게 운영한다. 또한 모자동실을 하다보면 빠른 시간 안에 모유수유를 할 수 있어 모유수유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유수유도 엄마와 아이의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간 산후조리원은 산모방과 신생아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아이가 엄마를 원할 때 제때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처음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 상담하러 온 산모들은 신생아실이 산모방과 너무 가까워 걱정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교감할 수 있으며, 간호사들이 옆에서 마치 밀착 과외와 같이 여러 정보를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 아이의 신호와 표현들을 이해하기 쉬워져서 아이와의 신뢰와 애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서 죄책감만 들었는데 점점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자세가 불편해서 우는지 우는 모습과 반응을 이해하며 점점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다.



모유수유 완모상과 어진아이상을 수상한 산모와 아기



모유수유 완모상과 어진아이상 상장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산모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은 세심한 산모 케어와 신생아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셋째를 출산하며 처음으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된 현지는 산모는 매번 간호사들의 친절함에 놀란다고 한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는 정해진 일정에 정확히 맞춰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와 고객의 느낌이 강했는데,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세심하게 산모와 아이를 가족처럼 돌봐줘서 감동이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아이가 계속해서 코막힘으로 고생했는데, 병원에 연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원 진료 이후에도 따뜻한 물 옆에서 계속 김을 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노력해 주었고, 밤새 산모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며 함께 고민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 시간에 모유수유를 시도하다가 아이가 거부하는 등 모유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알아서 처리해주곤 했는데,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원장을 비롯한 간호사가 계속 밀착해서 모유수유 방법에 대해 교육해 주며 대응 방안을 알려준다고 한다. 물론 아이를 데려가주면 산모 입장에서는 휴식 시간이 생겨 더 편하겠지만, 셋째를 출산해본 경험 상 귀찮더라도 산후조리원에서 배우고 연습해야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도 손쉽게 적응하고 돌발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산모들에게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추천한다고 했다.

게다가 현지는 산모는 셋째 출산으로 7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매우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2주를 추가 연장하여 총 4주간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면서 충분히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출산하게 되어 건강 회복과 육아에 걱정이 많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4주간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받아 행복하다고 한다.

②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요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랑 함께 행복한 엄마지. 꼭 행복하세요..”



출산과 산후조리의 과정을 현실적으로 다뤄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육아 걱정으로 가득찬 주인공 현진에게 산후조리원 원장 혜숙은 이렇게 말하며 응원한다.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전체의 52.6%로 출산을 한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겪고 있다. 그중 33.9%는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우울증의 정도를 심하게 겪고 있는 산모의 비율도 결코 낮지 않다.

산후 우울감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서 나오는 우울감이 가장 크다. 실제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원할 때 작성하는 문진표에도 우울감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이런 경우 서귀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해당 산모를 대상으로 우울 검사를 진행하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간호사나 심리상담 직원이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산모의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산후 우울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즘 카드에 무작위로 인쇄된 그림을 주제로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놀이가 산모와 가족들에게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양떼 사진을 고르고 이렇게 많은 아이를 더 낳고 싶다고 말하는 산모, 선물 그림을 고른 뒤 50대에 찾아온 아이가 선물 같이 소중한다고 행복을 표현하는 산모, 돈뭉치 사진을 고르고 앞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할 것 같으며 걱정을 표현하는 산모 등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끼리 울고 웃으며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감정을 나누고 나면 심리적으로 큰 안정과 카타르시스를 얻으며 우울감을 잊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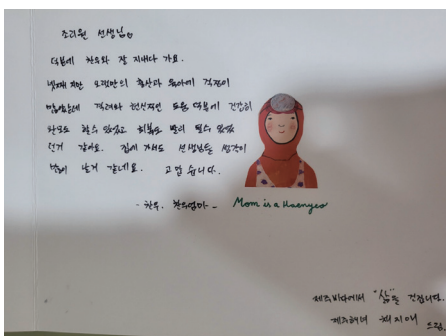


프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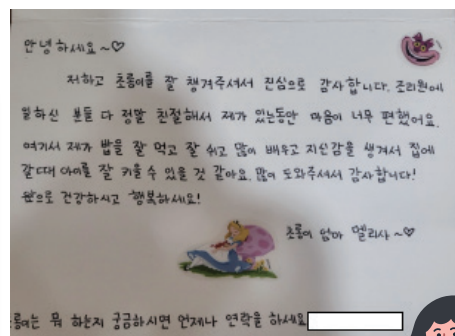


“저와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소통해주신 것은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안아 주시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 안아주실 때 안정을 찾았어요.” - Azriel Mae 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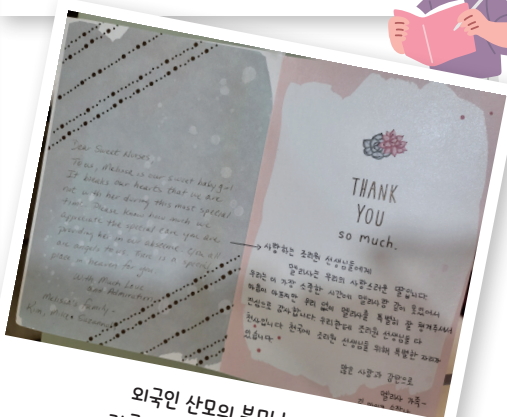
특히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은 더욱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타지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떨어져서 산후조리원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불안감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 초반에는 직원들도 경계하는 일이 잦다. 게다가 언어까지 통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쌓인 오해로 마음의 문을 닫을 우려도 있다. 그러나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서귀포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인 서귀포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산모와 같은 국적의 직원이 방문해서 통역을 해주고 말동무를 해주면서 외로움을 덜어준다. 게다가 그 직원들도 출산 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경우가 많아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방법과 육아 팁에 대해서도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처음에 간호사들에게 마음에 문을 열지 않았던 산모들도 퇴원할 때에는 서툰 한국어로 간호사들에게 감사 카드를 보내거나 명절 때 아이를 데리고 인사하러 들르기도 하는데,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이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해녀 엄마 채지애 산모가
남기고 간 감사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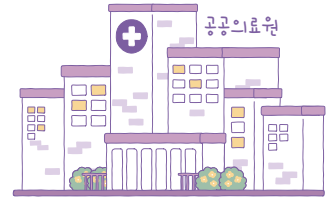


외국인 산모의 감사 편지



외국인 산모의 부모님이
자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

③ 공공의료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시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과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에서 분만이 가능한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도보 10분 내로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외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반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의료원과의 물리적 인접성 덕분에 의료진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며, 전문의의 신속한 대응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전문 의료진의 회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이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이 모든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신생아 뿐 아니라 서귀포의료원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산모의 건강 상태도 전문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적은 비용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못지 않은 의료서비스까지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히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가격만 저렴한' 산후조리원인 것이 아니고, 민간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영역이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이다. 저출산 문제는 향후 십수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기에 공공 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제도적 지원을 더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전국 모든 시·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충분히 설치되게 된다면 개별 공공산후조리원의 효능도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 맺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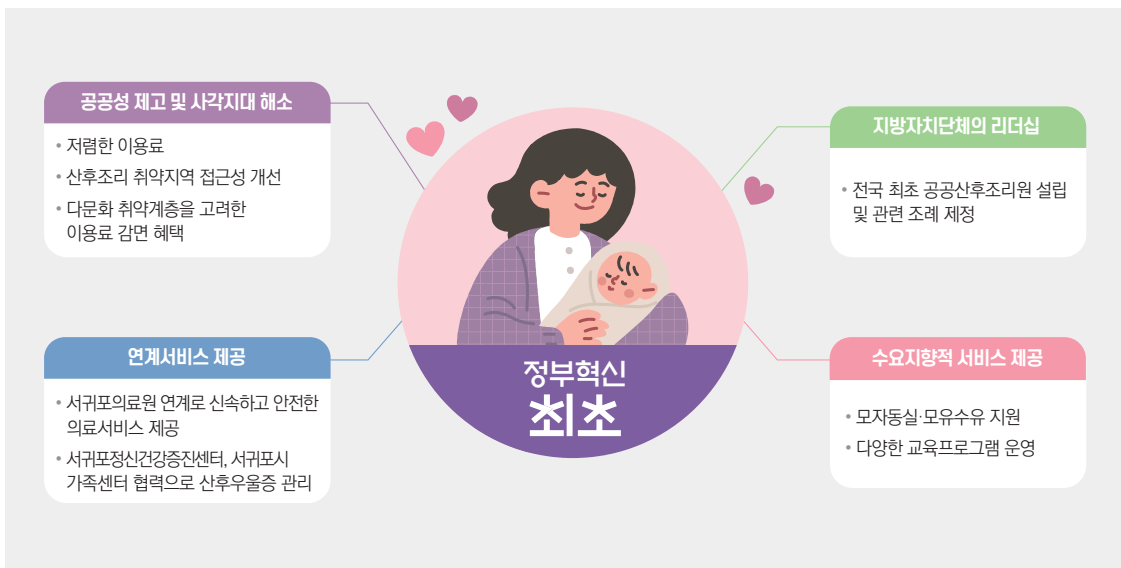
가임여성 1명당 0.72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초저출산율의 사회. 그러나 조출생률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출산율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사회는 은연중에 출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미루고 있다. 노키즈존이 보편화되고 비행기, 기차 안에서 시끄럽게 우는 아이들의 소리도 너그럽게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여유가 없어서 버린 사회적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딸이긴 했다가 이제 막 엄마가 되어버린 어린 그들에게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주에서는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마을의 어른들을 남녀불문 ‘삼촌’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한다. 이는 섬이기에 더욱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던 공동체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다. 전국에서 모두 민간에만 맡겨두던 산후조리를 공적 영역으로 처음 들여온 것은 제주 주민들의 이러한 성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노력을 들이기는 어렵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를 사회변화 탓으로만 치부하고 방치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인구소멸 국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첫 발을 내디딘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전하지 않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지만 이곳에서 누군가의 엄마로부터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 간 산모가 벌써 수천 명을 넘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출산과 육아는 결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 전통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가 된 사실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하고 대도시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든 소외되는 장소 없이 제주 서귀포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곁에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의 혁신 요인 !



도움을 주신 분들

이미정 의학관리팀장(서귀포보건소), 오유경 주무관(서귀포보건소), 김광희 원장(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한성이 책임간호사(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현지는 산모, 권지혜 산모

정부혁신 최초·최고

● 본 KIPA 정부혁신 최초·최고 브리프의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한국행정연구원 | 만든 사람들 김정해, 조세현, 엄지선, 김도균, 이소희

통권 제3호 | 발행일 2024년 10월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행정연구원 | 전화 02-2007-0591

홈페이지 www.kipa.re.kr | 디자인·편집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한국행정연구원